

[탄자니아 빈곤 아동을 위한 108DAY] 초등학생 헌 신발 보내기

1 목적

10월 8일은 불교적으로 108의 의미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날로 정하고 부처님의 자비, 보시,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본다. 더불어 아프리카 아동에게 신발 보내기 선포를 통해 국제적 리사이클 실천의 시간을 갖는다.

2 개요

가. 행사명 : 「탄자니아 빈곤 아동을 위한 108DAY」 초등학생 헌신발 보내기 선포

나. 일시 : 2016년 10월 8일(토) 12:00 ~ 18:00

다. 장소 : 종로 보신각 앞

라. 행사내용 : 헌 신발기부, 아프리카 사진전, 릴레이 108배

마. 요청사항

1) 포교사단 80명 108배 참가

2) 초등학생용 헌 신발이 있을 경우 행사장 방문 시 기부

바. 포교사단 집합시간 : 2016년 10월 8일(토) 16시 30분

3 행사 일정

시간	세부시간	내용	비고
12:00 ~ 18:00	프로그램 및 108배	- 홍보부스, 헌신발 접수	
	12:00 ~ 13:00	- 108배 1회차 및 휴식	
	13:00 ~ 14:00	- 108배 2회차 및 휴식	
	14:00 ~ 15:00	- 108배 3회차 및 휴식	
	15:00 ~ 16:00	- 108배 4회차 및 휴식	
	16:00 ~ 17:00	- 108배 5회차 및 휴식	
	17:00 ~ 18:00	- 108배 6회차 및 마무리	포교사단 진행
18:00 ~ 19:30	마무리	- 행사장 정리	

4 기대효과

- 올해로 3번째 진행되고 있는 108데이를 통해 10월 8일은 나눔의 날로 정하고 다함께 이웃을 생각하고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.
- 신지 않는 신발을 기부함으로써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으로 쓰이며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계기가 된다.

[탄자니아 빈곤아동을 위한 108DAY]

초등학생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



"지구 반대편, 열한 살 메사기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세요"

메사기는 오늘도 낡은 슬리퍼를 신고 왕복 4시간의 거리를 걸어 학교에 갑니다.
가난으로 끼니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메사기에게 새로운 운동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.
낡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오늘도 걷고 또 걸습니다.

한국에서 비행기로 꼬박 16시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
메사기처럼 태양에 뜨겁게 달궈진 흙 바닥을 맨발로 걷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많습니다.
이 아이들에게 작아져서, 또는 실증나서 신지 않는 신발을 보내주세요.
지구 반대편에 나의 온기가 전해집니다.

집에서 신지 않는 초등학생 헌 신발을 탄자니아 빈곤 친구들에게 나눠주세요.

[기부물품] 초등학생 1학년~6학년 헌 신발

[사업기간] 2016년 10월 1일 ~ 2017년 4월 30일

[선포일 및 장소] 2016년 10월 8일(토) 12:00 ~ 18:00 서울 종로 보신각

[참여방법]

- 발이 커져서 신지 못하는 신발, 실증이 나서 신지 않는 헌 신발을 아름다운동행에 보내주세요.
(후원자 이름, 성별, 신발사이즈, 연락처,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보내주세요)
-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선물 포장용 비닐을 사찰로 보내드립니다.
- 108DAY 행사장에 직접 신발을 가져오셔도 됩니다.

[보내는곳] 서울 종로구 인사동 11길 22 다연2층 우편번호_03145

[동참 및 문의] 전화 02)737-9595 www.dreaminus.org

